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첫째아이 70%로
둘째 아이부터는 전액 지원
다자녀가정 기준 범위도 늘려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익산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첫째아이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아이 이상은 7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월 최대 73만 8000원까지 확대된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은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육아 정보를 전달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정부 지원 기준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기존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익월 20일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1대 1로 돌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되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종일제와 임시보육 및 등·하원을 돕는 시간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이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5월5일 춘향제 개막을 알리는 한복패션쇼가 열린다. 한복패션쇼 주인공 이몽룡과 성춘향.

춘향제 개막식 한복패션쇼로 피날레 장식

시민·전문모델 등 41명 참여
5월5일 완월정무대에서 진행

한복패션쇼가 오는 5월5일 춘향제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남원시는 제92회 춘향제에 맞춰 한복패션쇼의 무대가 펼쳐진다고 밝혔다.

완월정무대에서 진행되는 한복패션쇼는 시니어춘향선발대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시민모델로 시작해 이몽룡과 성춘향의 첫 만남부터 이별과 재회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번 패션쇼에는 지난 4월4일부터 17일까지 모집을 통해 지원한 총 52명의 시민 중 사진과 영상으로 진행된 비대면 선정과정을 거쳐 선정된 시민모델 31명과 전문모델 10명 등 총 41명이 모델로 참여한다.

한복 패션쇼에 참여하는 시민모델은 시니어춘향대회 참가 경험자, 모녀·모자, 부부참가자 등 남녀노소 다양하게 구성됐다.

한복패션쇼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10일간의 연습을 거쳐 춘향제 한복패션쇼 무대에 오르게 된다.

이광연 춘향제전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축제 춘향제 개막식 피날레로 시민모델이 참여하는 한복패션쇼를 준비했다"며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열리는 특별한 한복패션쇼를 통해 춘향제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세무교실' 호응

순창군이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및 세무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층과 영세사업자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무료 상담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군민은 2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순창읍 행복누리센터 3층에 방문해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내용과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 후에는 남원세무회계사무소 구태희 세무사가 세무상담 및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세법지식을 교육할 예정이다.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 원하는 경우 순창군청 재무과(063-650-1347)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군 마을세무사가 찾아가는 세무교실에서 교육을 하고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관계자는 "재능기부로 주민들의 세금 고충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마을세무사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언제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시 '귀농·귀촌 청년창업박람회' 우수

정읍시가 2022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박람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됐다.

시는 박람회 기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강점을 소개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도시민 청년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원정책 소개와 귀농·귀촌 준비과정, 농촌 정착 성공사례 등을 안내했다.

또 주요 농특산물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등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올해부터 운영되는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등을 필두로 귀농·귀촌의 최적지인 정읍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도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투어' 운영

11월까지…복분자젤리 등 선물

고창군이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11월까지 운영한다.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34곳을 다니며 스탬프 인증을 받는 여행프로그램이다.

스탬프 투어는 고창읍성 투어로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로드, 고창관광 투어로드 3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선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전북 고창군'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참여자(공선법상 고창군민 제외)에게는 고창읍성 퍼즐게임과 복분자젤리를 증정한다.

앱에 접속하면 참여자의 현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투어 대상지가 순차적으로 노출되며, 해당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탬프가 화면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나철주 고창군 문화유산관광과장은 "고창 지역의 명소를 여행하면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길 바라며 아울러 고창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고창 관광의 색다른 재미와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군산시, 내년 국고 사업 신규 44건·계속 65건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

군산시가 최근 '2023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중점 대상 사업은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플랫폼 개발(90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179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200억원)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64억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56억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24억원)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종합정비(38억원) ▲자연장지 조성사업(10억원) ▲돗대산SOC 정비사업(20억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60억원) 등 신규사업 44건, 계속사업 65건이다. 보고회에서는 신규 발굴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반응과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향후 대응방안이 강구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부처 예산이 확정되는 5월말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담당 공무원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황철호 군산시장 권한대행은 "군산의 미래 먹거리인 신규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